

하나됨과 나눔

“ 사랑,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

< 베드로전서 4장 8-9절 >

- 종교개혁 50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오후 2시부터 특강이 있습니다.  
강사 : 박진용 목사 (한길교회)  
주제 : ‘밖에서 만난 사랑방의 길’ <출19:1-6>
- 대만 임자내교회 영성수련원 보수작업 지원팀은 작업을 마치고, 타이페이에 있는 만화교회(萬華教會)를 방문 중에 있습니다.
- 한공협 ‘에제르’모임이 30일(월)-31일(화) 오두막공동체에서 모입니다.
- 공동체 운영위원회 40차 임시회의 및 연수모임이 11월 4일(토) 오후 2시부터 자연예배당에서 모입니다.
- 금년 추수감사주일은 11월 둘째 주일(12일)입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허철영 집사 · 강춘자 권사 가정 ( 감사 )  
석용범 · 박영선 집사 가정 ( 감사 )

강단을 꽃으로 : 박영선 집사 ( 생일 감사 )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0 - 44 호

2023년 10월 29일

#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 대만선교에서 전하는 선교 소식

### 타이페이 만화교회(萬華教會)

제가 섬기는 만화교회는 주위에 80여개의 크고 작은 신당들, 1709년에 세워진 용산사(龍山寺)라는 절(신당)과 그 지역을 중심으로 부랑자들, 성 매매여성들, 중독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갈 곳도, 할 것도 없이 절 앞 공원의 긴 시멘트 의자에 길게는 몇 년을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긴 시멘트 의자에 같이 앉아 이곳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형편을 제 마음에 옮겨 헤아려 보니 제 마음에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외쳐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우리는 주님의 길을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의 길을 아십니다.

● 주일 예배에 어색한 눈빛으로 남자 한 분이 왔습니다. 아침에 거리를 배회하고 있는데 교회자매 한 분이 “교회 갑시다”라는 한 마디에 교회에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동안 그 거리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좋은 방법으로 주님의 길(傳道)을 전해야 하나 많은 생각을 했는데 “교회 갑시다”라는 한 마디가 길을 잃은 그곳 사람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 1, 만화교회에 나오는 노인들, 자신의 직업을 말 할 수 없는 여성들, 부랑자, 기존신자들이 함께 자비와 은총 속에서 빛과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 2, “교회 갑시다” 말을 할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과, “교회 갑시다”

선교와 섬김

라는 말에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여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전달 될 수 있도록.

### 임자내(林子內)교회

임자내교회는 대만 남부의 작은 농촌마을에 있는 교회로 약해지는 농촌마을의 어려움을 겪고 오히려 농촌 지역에 필요한 어린이 교육, 노인을 위한 봉사들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회복하고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임자내교회 성도 중에 돌아가시면서 50년된 자신의 집을 교회에 기증했습니다. 이 집은 단기 봉사자들을 위한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이번에 사랑방공동체에서 힘을 써서 김종필, 서병욱집사, 최기찬 전도사와 함께 화장실 수리와 집 내·외부 페인트칠을 다시 하여 사람이 기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사랑방공동체의 선교 봉사를 통해서 임자내교회는 한국교회를 이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랑방공동체의 선교 사역의 장이 더 많은 곳으로 확대되어 선교적 연결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대만 노효종 김희정 선교사

## 한주간의 말씀

“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  
 <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

## <수요기도회>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545, 486 / 549

기도 : 김영화 권사

성경 : 욥기 10장

제목 : 하나님께 탄원하는 욥

1. 내용: 욥이 고통을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을 직접 쏟아놓았다. (What)

<문단구분>

1~9절 욥의 원망 섞인 질문들

10~17절 주님께서 고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18~22절 나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2. 의미: 욥이 드디어 하나님께 직접 따지고 있다. (Why)

1) 욥은 고통의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어서 원통하다.

2) 욥은 친구들이 쏟아내는 말을 견디기가 어렵다.

3) 이제 하나님께 직접 호소하고 있다.

3. 적용: 하나님께서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이끄신다. (How)

1)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이끄실 때, 흔들리지 말자.

2)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욥의 자세를 배우자.

## 잘 키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들이 대학을 입학하던 2007년부터 4가지 조건을 나열하며 장남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드렸는데 15년 만에 장가를 갔습니다. 아버지는 20대에 고향교회를 떠나 사랑방에서 가정을 이루고,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모 집사 덕분에(?) 아직 사랑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아들은 한국교회 개혁과 갱신의 소명으로 탄생한 장로교 통합교단 사랑방과 함께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며느리의 조부는 한국침례교단의 총회장이셨고 부친도 침례교단 목사이시고 친척 대부분도 침례교회의 목회자입니다. 한국 개신교 100주년에 탄생한 사랑방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아들과 135년 역사의 한국침례교 1세대인 가문과 부모의 신앙적 뿌리와 역사성을 가진 며느리가 만나 가정을 이룬 것에 주님의 섭리와 뜻을 묵상합니다.

아들은 아버지보다 훨씬 더 주님과 교회를 잘 섬길 뿐 아니라 태몽처럼 세상과 사람들을 이롭게 하며 개혁과 갱신의 삶을 넉넉히 살아갈 것을 기대합니다. 유년 시절에는 유복하여 많은 것을 누리며 지냈으나 이후에는 물질적으로 마음고생을 하며 지나기도 했습니다. 대학 시절 청지기투자학회 대표도 하였고 현재는 재무(전략기획) 쪽에서 일하고 있는데, 되돌아보니 학창시절 돈에 대한 어려운 경험이 기독교인으로 재물에 관하여 단단한 사람이 되어 가는 데 유익했기에 오히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미래적으로 가정, 공동체의 재정적 마스터플랜을 그리는 데도 신앙 안에서 올바르게 감당해주리라 응원합니다.

아들이 5살 때 모 집사께서 영재사립형 이대부속유치원을 추천하고 입학을 열어주셔서 등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꾸러기학교가 대안학교의 효시로 출범하여 꾸러기학교 1기생이 되면서 우연이 아닌 여호와이레의 필연처럼 대학까지 학창시절 전체를 대안교육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첫 직장에서도 일반 학교를 졸업한 친구들과는 차이가 난다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틀에 박혀 있지 않고 '장화 신고 국회 가는' 꾸러기 출신의 대안적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런 꼬꼬마 아들이 장성하여 결혼을 하였습니다. 지나고 나니 어느 것 하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잘 키워주신 사랑방 식구 모두에게 감사

##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권재만 목사  
설교자 : 정재훈 목사

###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예배의 찬송
- \*기원의 기도
- \*기원찬송

시 편 24 : 3-6  
10

인도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영광 영광

### 죄의 고백과 용서

- \*참회의 기도
- \*용서의 말씀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로마서 8 : 1-2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288

###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 교

요한복음 12 : 23-26  
210

설교자  
따뜻한사랑방

“예수님의 길, 자기 부인의 길” 정재훈 목사

###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봉헌기도
- \*영광찬송
- \*위탁의 말씀
- \*강복기도

585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주님의 사랑이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양기모 이명호 / 봉헌위원 : 박영선 / 꽃꽂이 : 김영화  
돕는 이들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박민정 안지운  
서진솔 석지인 옥대철 이예은 김보경 진시우 진나우

예 배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섬기신 것처럼  
저희도 서로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 공동기도문

### 예수님의 길, 자기 부인의 길

예수님의 대답. 헬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명절을 지키러 왔다가, 나사로의 소문을 듣고, 큰 무리가 예수님의 입성을 축하하는 것을 보고서, 제자 빌립을 통해 예수님 만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방인들의 요청에 색다르게 반응하셨습니다. 먼저 자신이 영광 받을 때가 이르렀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밀알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나를 섬기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다 깊은 의미.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요청에 유대인의 메시아가 아니라 모든 민족의 메시아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부터 영광을 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셨습니다. 영광에 이르는 길은 썩어지는 밀알과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찾는 이들을 이 복된 삶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부인의 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은 바로 썩어지는 밀알과 같은 삶,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길, 십자가의 길 곧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진정한 개혁과 갱신은 각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기 부인은 다른 사람을 위한 삶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바로 이웃 섬김을 살아내는 삶입니다. 오래전에 이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부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선교의 열매를 맺으십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권재만 목사 / 기도 : 김용필 집사

##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 꾸러기학교

내년 2월에 졸업을 하는 꾸러기들이 졸업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처음으로 세 밤 자는 여행입니다. 비행기 타고 간다고 제주도에 간다고 조금 들뜨고 설레기도 하고 엄마 아빠를 세 밤이나 못 본다고 조금은 긴장도 했습니다. 가는 날 꾸러기동생들이 축석령휴게소에 배웅을 나왔습니다. 며칠 못 본다고 꼭 안아주며 잘 다녀오라고 다음 주에 만나자고 인사하는 동생들입니다. 동생들은 졸업여행기간동안 부모님들과 꾸러기학교에 와서 놀기도 하고 어린이대공원으로 나들이도 다녀왔습니다.

졸업여행을 간 꾸러기들은 제주도에서 잠수함, 배, 제트보트, 말, 발자전거를 타보고 섭지코지, 제주민속촌, 쇠소깍, 만장굴을 둘러보고 굴도 따고 거문오름 트레킹도 하고 스누피가든에도 가고 김녕미로공원에서 다섯이 흠어지지 않고 힘을 모아 함께 길도 찾았습니다. 전복죽, 보말칼국수와 여러 새로운 음식들도 먹어보았습니다. 차에서 숙소에서 꾸러기들은 노래도 부르고 놀이도 했습니다.

거문오름에서 한라산과 바다를 볼 수 있었을 만큼 날씨가 내내 좋아서·제주의 멋진 풍경들을 마음속에 사진으로 찍어 왔습니다.

기도와 여러 도움으로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 교사 : 정승희 >

### 어린이학교

어린이학교는 제주도로 도보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올레길 1번코스 와 5번코스, 그리고 21번코스의 일부를 역순으로 걸었습니다. 올레길은 바닷길, 돌길, 조용한 마을길, 대나무와 소나무 숲길 등 다양한 길들로, 하지만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으로 맞이해 줬습니다. 4박5일의 기간동안 좋은 날씨를 만난 것도 참 큰 복이었습니다. 안전한 길을 좋은 날씨와 환경으로 도보여행에만 오롯이 집중할 수 있어 정말 좋았습니다.

배움과 가르침

만남의 축복이 이어졌습니다. 제주도에서 만나는 분들은 인사를 드리면 반갑게 맞아주셨고 차들은 대열이 다 지나기까지 멈춰계시거나 최대한 반대쪽으로 붙어 천천히 지나가 주셨습니다. 한 트럭은 갑자기 빵빵 소리를 내며 거칠게 불렀는데 알고 보니 굴 한 상자를 내어주시며 가방에 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 한명이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싶다는 말을 우연히 들은 카페에선 화장실을 내어주시며 마음껏 쓰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어린이의 이모는 마지막 식사장으로 찾아오셔서 현수막과 선물로 놀라게 해 주셨습니다. 졸업생 어머니 한분께선 일을 하시면서도 틈을 만들어가며 매일 식사와 특식, 간식까지 모든 것들을 신경써주시며 일정을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연으로 더욱 풍성한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할 분들은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주신 어머니, 아버지 선생님들, 어린이학교 선생님들이셨습니다.

이번 여행에서는 역사적 장소인 냇빌레, 환해장성, 4.3유적지, 성산, 그리고 제주 특유의 문화를 담고 있는 무덤과 가옥 등을 함께 이해하며 걷는 여행이어서 더 뜻깊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기도해주신 사랑방 식구들께 감사합니다.

< 교사 : 권재만 >

### 멋쟁이학교

화창한 낮이 점점 짧아지는 것을 체감하면서 보낸 한 주였습니다. 몇몇 멋쟁이들은 이때가 아니면 언제하겠냐는 듯이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를 통한 성장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아 즐거워집니다. 간혹 상처를 극복하는 경험을 쌓게 되는 것도 여느 학생들과는 다른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요일에는 포천 시내쪽으로 마라톤을 뛰었습니다. 약 10km의 거리였는데, 전체적으로 좋은 기록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공동심화학습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한층 이슈가 되고 있는 영역을 공부하며 시야가 넓어지길 기대합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학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응원해주시길 바랍니다.

< 교사 : 이어진 >

## 반가운 손님

바스락 바스락 낙엽 밟는 소리가 들립니다.

가을하늘이 높고 초록했던 나무들이 빨갭게 예쁜 옷으로 갈아입었고, 꾸러기친구들은 자연물로 예쁜 왕관을 만들고 어린이 친구들은 낙엽을 던지며 깔깔 웃습니다. 앞마당엔 따스하고 시원한 바람으로 자신의 몸을 말리는 곡식들이 누워 미소를 띄웁니다.

식구들 중 4명이 제주도로 갔습니다. 저는 반가운 이들을 만날 시간이 되어 약속을 정해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의 만남은 나를 반갑게 맞이하며 내가 다른 누군가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했습니다.

사랑방은 손님이 오실 때면 정성껏 준비하며 대접하는 손길들과 대접받는 분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듭니다. 손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 전부터 기다려지는 마음이 앞서 정성껏 준비를 합니다.

제주에 식구들을 보낸 저도 손님을 맞이하게 될 사람처럼 만날 날을 기다립니다.

어린이 학부모들도 함께 만나 어린이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손님을 대접하듯 고이 준비합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기다려본 적은 오랜만이라 마음이 설레이기도 했습니다. 공항이 주는 설레임의 공간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기다리는 만남의 장입니다. 아이들을 기다리는 부모님들의 애타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문득 예수님을 기다리는 나의 마음은 어떤지 생각해봅니다. 매일 아침 우리에게 또 나에게 오실 예수님을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겠습니다.

또 매일의 아침 이곳 사랑방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손님들과 식구들에게도 말입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차태옥 사모

## <수요 정오기도회>

인도 : 이어진 전도사

찬송 : 288, 539

성경 : 에스겔서 33장 10-16절

말씀 : 앞으로 선을 행하라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아프가니스탄 지진 희생자들을 위해>  
10월 초, 아프가니스탄에서 진도 6.3의 지진이 3번이나 일어났습니다. 발생 하루만에 320명의 희생자와 1000명의 부상자가, 현재는 2천명 이상의 사망자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시기와 겹쳐서 관심과 지원을 적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대만 선교지>  
1) 대만에서 선교활동을 이어가시는 노효종 선교사님과 그 가정, 그리고 현지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2) 그곳으로 떠나신 최기찬 전도사님, 김중필 집사님, 서병욱 집사님을 위해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 위해  
1) 환절기 공동체 지체들의 건강을 위해  
2) 여행을 떠난 꾸러기/어린이학교를 위해  
3) 심방 과정이 순탄하게 흘러가도록.

## <생활공동체 소식 >

어린이학교 도보여행, 꾸러기학교 졸업여행, 대만 선교사역 때문에 많은 공동 식구들이 외부로 나가는 있는 한 주였습니다. 각 학교 여행 일정은 잘 마무리 되어 선생님으로 섬기고 있는 식구들도 무사히 잘 돌아왔습니다.

다음주 화요일에 귀국하는 대만 선교팀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대만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함께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세 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 장영미 전도사 >